

한국전통색 청·홍의 색조특성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or Tones on Korean Traditional Color Blue and Red

이 경 희(Lee Kyung-Hee)

금오공과대학교 신소재시스템공학부 섬유패션공학 전공

본 논문은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 후 연수과정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서론

2. 색명으로 본 전통색 청·홍색계의 색조

- 2-1. 색명의 구조로 본 청·홍색계의 색조
- 2-2. 염색방법으로 본 청·홍색계의 색조
- 2-2 「영친왕가 의대발기」를 통해 본 궁중에서 쓰인 청·홍색계의 색명과 용도

3. 염직유물의 측색으로 본 전통색 청·홍색계의 색조

- 3-1. 청색계 유물의 색조의 특성
- 3-2. 홍색계 유물의 색조의 특성

4. 전통색 청·홍색계의 색조활용을 위한 천연염색의 시범(試染)

- 4-1. 염색전처리
- 4-2. 청색계의 색조활용을 위한 남(藍)의 생엽(生葉)을 이용한 천연염색
- 4-3. 홍색계의 색조활용을 위한 홍화를 이용한 천연염색

5. 결론

참고문헌

(要約)

한국전통색이란 시대를 초월하여 한국민족의 삶속에 살아있는 색이다. 이러한 전통색 중 한국전통색을 대표하는 청·홍의 색조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선시대의 색명과 염직유물의 색조를 조사하였다.

한국전통색 청·홍의 색조를 조사하기 위하여 먼저 조선시대의 문헌을 통하여 출현색명을 조사하였다. 색조를 나타내는 한국말에는 대단히 다양한 형용사가 앞에 붙어 색조를 특징짓는다. 색명에는 여러유형의 형용사들이 앞에 붙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농색과 담색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다. 이처럼 제한된 색명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조선인들은 다양한 톤의 청색계(32색)와 홍색계(40색)의 색명을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청·홍색계의 출현율은 대단히 높고, 조선시대의 궁중복식에서도 주조색으로서 사용되었다. 조선인은 다양한 청·홍색계의 배색으로 그들의 음양론에 기초한 색채관과 세련된 미의식을 표현하였다.

박물관에 있는 염직유물들의 색채는 측색되어 먼셀컬러시스템과 ISCC-NBS의 계통색명법에 의해 분류되고, 고찰되었다.

또한 전통색조인 남염과 홍화염이 산업체에서 이용되어지도록, 남염과 홍화염의 염색방법을 계량화하여,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Korean traditional color passed down over countless generations has surpassed both time and space and continue today to breathe life into its people's everyday. In order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color blue and red, we investigate the names of them and measured the color tones of textile remains in Chosun era.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color blue and red have been surveyed by means of the examination of color names in many famous literatures in Chosun era. Korean terms for color tones were characterized by enormous variety of epithes crowned on them. The color names mentioned contain many unaccountable epithes which were characterized also deep colors and light colors were dominant in it. As a means of enhancing possibilities whithin limited colors, the commoners increased the names for varying tones of blue color group(32kinds) and red color group(40kinds). These 'blue(indigo dyeing)' and 'red(safflower dyeing)' in Chosun era were shown very high frequency in use and the costume colors in Royal Court. With combination of these various blue and red colors they represented a thought of color based on Yinyang Theory and created a polished aesthetic taste.

The color samples of textile remains in museum were measured and designated by Munsell color system and the ISCC-NBS color designation system. The appeared rates were derived on Chosun era and features of colors using on the period were discussed.

We aim to present specific recipes in indigo dyeing and safflower dyeing for using our apparel product and folk art.

(Keyword)

Korean traditional color, blue, red

1. 서론

민족마다 문화가 다르듯이 색채문화에 있어서도 민족별로 고유의 색채문화와 색채감정을 갖고 있다. 한국전통색에는 한국인의 색채감정의 고유성이 응축되어 있다. 한국전통색이란 오랜 세월동안 한국의 역사속에 전해져 온 색채로, 한반도의 독특한 자연풍토와 사회적인 환경속에서 형성되어 온 색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한국전통색은 한국인의 색채역사속에서 널리 응용되어왔고, 현대도 그 색명과 색조, 그리고 색채감정이 계승되고 있는 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전통색이란 시대를 초월하여 민족의 색채감각속에 살아있는 색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통색의 연구는 시간간 색채역사의 연구임과 동시에 규범적인 연구이기도 하다.

현대에는 서구중심의 다량의 색채정보가 발생되어, 자칫하면 외래의 색명과 색조의 유행속에 전통색이 사라질 위험에 있다. 색명에 있어서는 이미 그러한 위험이 나타나, 현행 관용색명 115색 속에는 전통색명에 유래한 색명이 전분홍, 진다홍, 연지색, 연다홍, 인분홍, 고동색, 북청색, 진옥색, 옥색, 군청, 진남색²⁾ 등의 11색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전통색에 응축되어있는 한국인의 색채감정을 이해하고 한국문화의 특성을 나타내는 색체계화를 세우기 위해서는, 전통색의 현대적인 이해와 활용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많은 전통색중 대표색이라 할 만한 청·홍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색채관에서 청은 양(陽)으로 남자를 상징하는 색채요, 홍은 음(陰)으로 여자를 상징하는 색³⁾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결혼식에 신부가 입었던 활옷은 길감을 다홍색으로, 안감을 남색으로하여 '이성지합' (二姓之合)을 상징하였다. 조복은 적조의와 청조의로 구성되었고, 비빈은 예복으로 청·홍 두벌의 슬관치마를 겹쳐입었다. 그 밖의 의복에서도 청·홍은 결감과 안감, 포(袍)와 대(帶)의 관계 등으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 그러므로 유물을 보면 청·홍의 출현율이 대단히 높아, 청·홍은 한국 전통색을 대표하는 양색(兩色)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국전통색 청·홍의 색조를 문헌과 유물출색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전통색조의 현대적인 활용을 위하여 천연염색으로 시염(試染)하여 색조를 데이터화 하였다.

2. 색명으로 본 전통색 청·홍색계의 색조

한국의 전통색명은 시대가 내려옴에 따라 분화되어 조선시대에 152색⁴⁾이라는 가장 다수의 색명을 나타낸다. 이 색명에는 중복되는 색도 있지만, 전 시대인 고려시대에 비하여 크게 색명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에 색의 분화가 다양했음을 의미하고, 염색시 색과 색의 혼색인 교염(交染)에 의해 중간색이 많이 출현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조선인이 미묘한 색의 차이를 구분해 쓸 수 있는 세련된 색채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과 매염제사용 등의 염색기술이 발달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의 색명 중 가장 분화가 컸던 것은 청색계와 홍색계였는데, 이는 조선인의 청·홍에 대한 기호도와 활용도가 컸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청·홍색계의 색명을 통하여 그 색조의 특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 1) 이 경희, 전통색에 대한 한·일대학생의 색채기호의 비교, 한국색채학회논문집 제9호, 172, (1997)
- 2) 고을한·김동욱, 디자인을 위한 색채계획, 미진사, 187-189, (1994)
- 3) 이 선재, 유교사상과 의례복, 아세아문화사, 57, (1992)
- 4) 이 양섭, 조선시대 색명 및 그 색 연구, 한국색채학회지 제3호, (1992)

2-1. 색명의 구조로 본 청·홍색계의 색조

『조선왕조실록』, 『임원경제지』, 『규합총서』, 『의대발기』, 『한양가』 등의 문헌에 나타난 청·홍색계 색명을 조사해보면 [표1]과 같다.

[표1] 문헌에 나타난 조선시대의 청·홍색계 색명

출전	청색계색명	계	홍색계색명	계	
	북청(靑靑), 옥색(玉色), 심람(沈藍), 벽(碧), 남청(藍靑), 아청(碧靑), 유청(柳靑), 청(靑),		비(緋), 천홍(茜紅), 적(赤), 강(絳), 훈(纁), 주(朱), 토홍(土紅), 주홍(朱紅), 단(丹), 홍(紅), 목홍(木紅), 심홍(深紅), 대홍(大紅), 소홍(小紅), 분홍(粉紅), 도홍(桃紅), 주황(朱黃), 담홍(淡紅), 천홍(淺紅), 선홍(鮮紅), 다홍(多紅), 진홍(眞紅), 흑홍(黑紅), 심도홍(深桃紅), 담도홍 (淡土紅), 반홍(緋紅), 대홍색, 소홍색, 도홍, 연홍(蓮紅), 은홍(銀紅), 목홍색, 수홍(水紅), 다홍, 번홍색(番紅色), 정홍색(丁紅色), 진홍색(緋紅色) 규홍색(姜紅色), 토홍색 홍, 적, 목홍, 진홍, 훈, 분홍, 연지(燕脂)		26
왕조 실록	청벽(靑碧), 취람(翠藍), 심청(深靑), 남(藍), 심옥(深玉), 연람(軟藍), 천청(天靑), 담청(淡靑)	16			
	포도청색(葡萄靑色), 단청색(蛋靑色), 남색, 취람, 천람(天藍), 아청색, 검제지	9	포도청색(包頭靑色) 천청색, 청조색(靑况色)		
규합 총서	아청, 청, 벽, 남색, 옥색, 유청, 반물, 번루, 쪽, 천청(淺靑)색	10	다홍, 진다홍(眞多紅), 연다홍(軟多紅), 진홍, 분홍, 진분홍(眞粉紅), 연분홍(軟粉紅), 도홍, 훈, 반홍, 자홍(紫紅) 홍, 주, 비, 적, 목홍, 다홍(茶紅), 분홍	7	
의대 발기	아청, 유청, 품람(品藍), 양람(洋藍), 일람(日藍), 취람, 진남, 청옥색(靑玉色), 한양가	13			
	아청, 남, 청, 반물	4			
출현색	32색		40색		

청색계의 출현색명은 남, 청, 벽, 옥, 아청, 심청, 담청, 북청, 유청, 천청(天靑), 남청, 청벽, 심옥, 심람, 연람, 취람, 단청색, 포도청색, 포두청색, 청조색, 진청색(淺靑色), 천람, 일람, 품람, 양람, 진남, 남송, 청옥색, 반물, 번루, 갈매, 쪽의 32색이다.

홍색계의 출현색명은 홍, 강, 비, 적, 훈, 주, 단, 목홍, 대홍, 다홍(多紅), 분홍, 진홍, 도홍, 심도홍, 토홍, 담도홍, 소홍, 담홍, 심홍, 흑홍, 선홍, 주홍, 주황, 천홍(淺紅), 진홍(茜紅), 번홍색, 정홍색, 은홍, 수홍, 연홍, 규홍, 선홍, 연지, 진다홍, 연다홍, 진분홍, 연분홍, 반홍, 자홍, 다홍(茶紅) 등의 40색이다.

이것으로 볼 때, 조선시대의 청·홍색계의 색명은 청색계보다 홍색계의 색명이 더 많이 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청·홍색계 색명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기본색명, 기본색명이 조합된 색명, 수식어와 기본색명이 조합된 색명, 기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1) 기본색명

기본색명은 청색계의 남, 청, 벽, 옥, 홍색계의 홍, 강, 비, 적, 훈, 주 등이다. 기본색명은 청·홍색계의 기본이 되는 색들을 가리키

는 색명으로, 저마다의 고유색조를 가지고 있다.

2) 기본색명의 조합

기본색명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색명은 기본색명 두가지가 합하여져 이루어진 색명이다. 즉, 남청, 청벽, 청옥, 흑청, 주홍, 주황, 흑홍, 자홍 등이다. 이러한 색명은 두 기본색의 중간색조를 나타내는 색명이라고 생각된다.

3) 수식어와 기본색명의 조합

전통색의 색명에는 기본색명 위에 수식어가 붙어 농색(濃色), 담색(淡色), 명색(明色), 암색(暗色) 등의 색조를 나타내었다. [표2]는 이러한 농담색을 나타내는 수식어의 종류이다.

[표2] 청·홍색계 색명의 농담색을 나타내는 수식어

분류	청색계색명	홍색계색명
농색	심(深), 진(眞)	대(大), 다(多), 심(深), 진(眞), 선(鮮), 흑(黑)
담색	천(淺), 연(軟), 담(淡)	소(小), 수(水), 천(淺), 연(軟), 담(淡)

농담색을 나타내는 수식어의 종류를 보면, 홍색계색명의 수식어가 청색계색명의 수식어보다 다양한 수식어가 나타났다. 청색계와 공통된 수식어외에 홍색계에서는 농색을 나타내는 수식어로 대, 다, 선, 흑이, 담색을 나타내는 수식어로는 소, 수가 나타났다.

수식어와 기본색명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색명은 심람, 심청, 심옥, 연람, 담청, 대홍, 진홍, 다홍, 진다홍, 연다홍, 진분홍, 인분홍, 심홍, 선홍, 담홍, 소홍, 수홍, 심도홍, 담토홍 등으로 농담색을 나타낸다.

농담색의 색조를 나타내는 수식어는 명도와 채도를 합한 의미로 파악되는데, 담(淡), 천(淺), 연(軟), 소(小)는 밝고 연한 색조를 나타내고, 수(水)는 염료를 물에 풀어 흐리게 염색되는 상태를 가리키므로, 담색을 나타내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생각된다.

또한, 선(鮮), 다(多), 대(大), 심(深)은 선명하고 진한색조를 나타낸다. 진(眞)은 순수한 색이든가, 본래의 염료를 사용하여 염색했다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흑(黑)은 진하게 염색되어 검게 느껴지는 색조를 나타낸다고 보겠다.

한국전통색에서 농담색은 주로 3단계로 표현하였다. 심(深)·천(淺)의 수식어를 붙여 심청, 청, 진청이나, 심홍, 홍, 진홍과 같은 3단계의 농담색을 표현하였다. 이때, 심은 명도가 다소 낮고, 채도가 비교적 높은 색채이다. 천은 명도가 높고, 채도가 낮은 색채이다. 또한 진분홍, 분홍, 연분홍의 예처럼 진·연의 접두어를 붙여, 농담의 3단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4) 기타

색명앞에 임재를 나타내는 접두어를 붙인 목홍, 진홍(蔞紅), 토홍 등의 색명도 있다. 목홍은 소목으로 염색한 것을, 진홍은 꼭두서니로 염색한 것을, 토홍은 대자석(大赭石)으로 염색한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밖에 사물의 색조에 비유한 야청(鴉靑), 유청(柳靑), 포도청(葡萄靑), 연홍(蓮紅) 등의 색명도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청·홍색계의 다양한 분화색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조선시대에 청·홍색계에 대한 기호가 컸던 것과 색채활용도가 컸던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청·홍의 색명에 다양한 수식어를 붙여 농담색과 분화색조를 나타내었고, 청색계보다는 홍색계에 더 많은 수식어와 분화색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2-2 염색방법으로 본 청·홍색계의 색조

「임원경제지」, 「상방정례」, 「규합총서」에는 염색하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임원경제지」에 나타난 염색방법 중, [표3]과 같이 교염에 의해 본래 가진 색조와 다른 분화색조를 나타내기도 한다.

조선시대에 청색염으로는 쪽을 이용했는데, 쪽물의 농담색과 쪽과 다른 염재를 교염함으로써 수많은 청의 분화색을 만들었다.

쪽물은 청색이지만, 쪽과 황백을 교염함으로써 녹색기미를 나타내는 단청과 유청을 만들었다. 특히, 유청은 「상방정례」 염법에 초록과 같은 방법으로 염색하므로, 초록과 같은 색으로 보고 있다⁵⁾. 고대사회에서는 색명 '청'에 초록의 색조를 포함하였다. 이것이 잔존하여 지금도 '푸른 산', '푸른 들' 등 초록과 청을 혼용하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으며, 교통신포등의 초록도 '파란불'이라고 혼용하고 있다. 이렇듯 조선시대의 청색명에는 녹색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염색방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쪽과 소목을 교염함으로써 자색기미를 나타내는 포도청색과 천청색(天靑色)이 있다. 흑색조를 발색하는 것으로는 오배자와 진피를 교염하는 청조색, 밤껍질과 연자각을 교염하는 포두청색이 있다. 이를 볼 때 청색계의 색조는 쪽물만에 의한 순수한 청색조와 쪽과 다른 염재와의 교염에 의한 녹색조, 자색조, 흑색조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홍색을 염색하는 주요한 염재는 홍화와 소목, 꼭두서니 등을 들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인 염재는 홍화였고, 이로 인해 '홍'이라는 접미어가 색명에 많이 쓰인 것으로 생각된다.

홍화염의 경우는 대홍, 다홍과 같은 농색을 비롯하여, 분홍, 인분홍 등의 담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을 염색하였고, 그 결과 홍색계의 분화색이 급증하였다고 생각된다.

홍색을 염색하는 염재로는 홍화, 소목, 꼭두서니외에도 노목, 산행목, 아랑오피, 오리목, 족규화, 대자석 등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염재중 족규화는 규홍색을, 대자석은 토홍을 염색하는 단일염으로도 쓰였지만, 나머지는 주로 교염에 의해 분화색조를 나타낼 때 쓰였다. 홍색계의 교염은 주로 황색기미를 가미한 것이었는데, 소홍은 소목에 황단이나 괴화를, 반홍은 소목에 울금을, 변홍색은 소목에 괴화와 산행목을, 다홍색은 홍화에 아랑오피를, 정홍색은 산행목과 오리목을 교염함으로써 홍색계의 분화색조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염색방법을 보면, 청색계가 홍색계보다 교염에 의해 보다 폭넓은 색조를 나타냈고, 따라서 보다 넓은 색역을 포함한 것을 알 수 있다.

[표3] 교염에 의한 청·홍색계 분화색조의 유형

색명	염재	색조
청 단청색, 유청	쪽, 황백	녹색조
색 포도청색, 천청색	쪽, 소목	자색기미의 청
계 포두청색	밤껍질, 연자각	흑색조
청조색	오배자, 진피	흑색조
소홍색	소목, 괴화, 황단	황색기미의 홍
홍 반홍	소목, 울금	황색기미의 홍
색 변홍색	소목, 괴화, 산행목	황색기미의 홍
계 다홍색(多紅色)	홍화, 아랑오피	황색기미의 홍
정홍색	산행목, 오리목	홍색조

5) 이 양섭, 조선시대 궁중의복 염색연구, 연구보고, 제11집, 건국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124, (1988)

2.3. 「영친왕가 의대발기」(「英親王家 衣履發記」)를 통해 본 궁중에서 쓰인 청·홍색계의 색명과 용도

「의대」란 왕실의 왕·왕세자·왕비·왕세자빈 등의 의복을 말하고, 「발기」란 사건물명(事件物名) 등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의대발기란 궁중에서 명절·계절에 따라 제작하는 각종 의복의 품목을 기록한 목록이다. 「영친왕가 의대발기」는 장서각에 소장된 「의대발기」중에 영친왕에 관련된 것을 인대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즉, 1897년부터 1918년까지의 내용으로, 영친왕의 삼칠일부터 가례시의 물복까지를 적은 기록이다. 이 기록을 보면 조선왕조 말기 궁중에서 사용된 청·홍색계의 색명과 그 색을 사용한 복식의 유형을 알 수 있다.

영친왕가 의대발기에 출현하는 색명은 백, 조록, 무록, 자색, 보라, 송화색, 황, 주황, 모란색, 연지회색, 선지회색, 고동색, 남, 옥색, 남송, 양람, 아청, 청옥색, 갈매, 다홍, 분홍, 홍, 진분홍 등의 총 23색이다. 이중, 청색계로는 남, 옥색, 남송, 양람, 아청, 청옥색, 갈매의 7색이, 홍색계로는 다홍, 분홍, 홍, 진분홍의 4색이 출현한다. [표4]는 「영친왕가 의대발기」에 출현하는 청·홍색계의 색명과 의복의 유형으로, 청·홍색계 내에서의 각 색명의 출현횟수와 출현율을 나타낸 것이다.

「영친왕가 의대발기」에 출현하는 색명의 총 출현횟수가 726회인데, 이중, 청색계의 출현횟수가 307회로 42.3%의 비율이고, 홍색계의 출현횟수가 212회로 29.2%의 출현율을 나타내었다. 청색계의 출현횟수가 홍색계보다 많았는데, 이것은 발기에 남자인 영친왕의

[표4] 「영친왕가 의대발기」에 나타난 청·홍색계 색명과 출현율

색 계	순 위	색 명	의복의 유형	출현 횟수	출현율 (%)
청 색 계	1	남	웃치마, 내작, 도포, 쾌자, 주의, 면복, 학창의, 겹삼, 단상 저고리, 동의복, 동다리,	135	43.9
	2	옥색	토수, 용포, 내작, 주의, 동의대	72	23.5
	3	남송	주의, 동다리, 동의복, 사규삼, 단주의, 배자, 토수, 동의대, 동의, 겹동의대	42	13.7
	4	양람	배자, 쾌자, 상, 무족이	36	11.7
	5	아청	색관굴레, 복건, 쾌자, 직령, 색복	12	3.9
	6	청옥색	동의대, 토수, 주의	8	2.6
	7	갈매	치마, 휘건치마	2	0.7
계				307	100
홍 색 계	1	다홍	내작, 한삼, 용포, 단상, 강사포, 겹삼, 봉대, 세주치마, 천의, 온혜 저고리, 주의, 동의복,	126	59.4
	2	분홍	내작, 한삼, 동의대, 겹삼, 적삼, 잇치마, 천의, 겹삼	82	38.7
	3	홍	패술, 상, 강사포	3	1.4
	4	진분홍	세조대	1	0.5
계				212	100

6) 김 영숙, 조선조말기 왕실복식, 원류사, 222, (1988)

의대를 주로 기록하였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청·홍색계의 출현율을 합하면 519회로 전체의 71.5%를 차지한다. 이처럼 궁중에서 청·홍색계가 주요 의복의 유형을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청·홍은 조선시대 궁중의복의 주조색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청색계에서는 남, 옥색, 남송, 양람, 아청, 청옥색, 갈매의 순으로 출현하여, 남이 가장 많이 쓰였다. 홍색계에서는 다홍, 분홍, 홍, 진분홍의 순으로 출현하여 다홍이 가장 많이 쓰였다.

의복의 유형으로는 청색계에서는 남송을 사용한 유형이, 홍색계에서는 분홍을 사용한 유형이 가장 많았다.

3. 염직유물의 축색으로 본 전통색 청·홍색계의 색조

전통색을 조사하기 위한 염색자료로서는 문헌이나 풍속화 등의 간접자료와 염직유물과 같은 실물자료로서 대별할 수가 있다. 이중 가장 좋은 것은 실물자료인 염직유물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한국은 옛부터 전란이 많았던 탓인지 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조선시대 이전의 유물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조선시대, 그것도 말기의 유물이었다. 더구나 색의 변화 등을 염려하여 사진을 찍거나 축색기로의 축색을 허가하지 않는 박물관이 대부분이라 연구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색조가 축색이 되었으면, 천연염색으로 실제유물의 색조를 재현해서 데이터화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전통색이 표준화되어질 수가 있다. 그러나, 전통염색법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 이 또한 연구도상에 있다고 보겠다. 이러한 어려움에 때문인지 한국전통색은 그 색명과 색조가 아직 표준화되어있지 못하다.

과거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각계의 연구자의 협력을 얻어 「한국 전통표준색명 및 색상」의 제1차시안(1991) 및 제2차시안(1992)을 내놓았으나, 확정안을 내어놓지 못한 채 연구가 중단되었다. 또한 이 두차례의 시안에서는 인쇄물에 의한 색조의 제시에 그쳤으나, 전통색의 연구는 천연염색을 통한 색조의 실증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청·홍색계의 색조를 실증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청색계유물과 홍색계유물을 축색조사하여, 그 색조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축색한 유물은 숙명여대와 건국대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로, 단령, 천력, 구군복, 전복, 당의, 원삼, 활옷, 저고리, 치마 등의 의류와 굴레, 땀기 등의 장신구, 그리고 보자기 등의 생활용품이었다. 유물축색에는 색채측색계(Minolta CR-300)를 사용하여, 유물의 색을 3회 축색한 평균치를 먼셀기호로 표기하였다.

3-1. 청색계 유물의 색조의 특성

청색계유물은 단령, 천력, 구군복, 전복, 활옷, 원삼, 치마 등의 유물 37예를 축색하였다. 그 축색결과를 표시한 것이 [표6]이다.

먼저, 이 축색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먼셀컬러시스템의 HV/C의 삼속성에 있어서의 분포결과로 살펴보았다. 색상은 먼셀 휴(hue)로 분류하고, 명도는 저명도(0-3), 중명도(4-6), 고명도(7-10)로 나누었다. 채도는 FIC의 색상별 채도구분기를 적용하였다.

그 다음은 유물의 축색결과를 계통색명과 톤으로 분류해보았다. 톤은 명도와 채도를 합한 개념의 용어인데, 디자인현장에서는 색

7) 이 경희, 한·일전통색의 삼속성에 있어서의 분포특성, 한국 색채학회논문집 제5호, 210-211, (1995)

[표5] JBCC의 계통색명과 톤 분류표

계통색명	톤
B Blue	v vivid
gB greenish Blue	s strong
pB purplish Blue	m moderate
V Violet	d dull
pR purplish Red	dp deep
R Red	gy grayish
rO reddish Orange	dgy dark grayish

[표6] 청색계유물의 측색결과

측색데이터(먼셀치)	계통색명	톤
1 3.2B 2.4/1.0	B	dgy
2 4.5B 2.9/3.1	gB	d
3 4.9B 2.1/0.7	B	dgy
4 5.1B 3.8/3.3	gB	m
5 7.5B 4.3/3.5	gB	m
6 8.1B 3.6/4.7	gB	m
7 9.5B 2.6/2.4	B	dgy
8 9.6B 2.4/2.0	B	d
9 9.8B 2.9/3.0	B	d
10 10.0B 2.1/1.4	B	dgy
11 0.6PB 2.3/3.4	B	d
12 1.4PB 2.3/2.8	B	d
13 1.6PB 3.5/5.2	B	m
14 1.7PB 2.1/1.9	B	dgy
15 1.8PB 2.3/2.7	B	d
16 1.9PB 2.3/2.0	B	d
17 2.1PB 3.4/6.9	B	m
18 2.2PB 3.2/3.7	B	gy
19 3.3PB 2.2/3.3	B	d
20 3.4PB 3.9/3.5	B	gy
21 3.7PB 2.9/6.5	B	d
22 4.4PB 1.9/3.7	B	d
23 4.5PB 3.1/8.1	B	m
24 4.6PB 2.6/5.7	B	d
25 5.3PB 2.3/4.5	B	d
26 6.3PB 2.5/5.8	pB	m
27 6.5PB 1.5/4.6	pB	d
28 6.6PB 2.4/7.6	pB	dp
29 6.7PB 1.9/6.0	pB	d
30 6.7PB 2.5/8.3	pB	dp
31 7.7PB 1.9/8.1	pB	dp
32 8.5PB 1.8/8.6	pB	dp
33 9.0PB 1.9/8.0	V	dp
34 9.2PB 2.8/7.7	V	m
35 9.2PB 3.3/5.7	V	m
36 9.3PB 2.3/3.1	V	d
37 9.7PB 1.3/7.3	V	dp

을 명도와 채도로 분류하기 보다는 톤의 개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산업채현상에서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ISCC-NBS의 계통색명 분류법을 따른 JBCC(Jafca Basic Color Code)의 계통색명과 톤 분류로 표시하였다.

[표5]는 JBCC의 분류표 중 본고에서 이용한 청색계와 홍색계의 계통색명과 톤만을 정리한 표이다.

[표7]은 [표6]의 청색계유물의 측색결과를 HV/C의 분포도로 그 출현수를 정리한 것이다.

먼셀의 분포로 보면 청색계유물에 출현하는 색상은 B, PB의 2색상이다. 청색계유물의 측색치와 색조분포도에 나타난 특징을 보면 색상은 B에 10예, PB에 27예가 나타나 B보다 PB의 출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6PB를 넘는 색상은 청자로 분류하는데, 유물중 이에 속하는 것이 12예가 있어, 자색기미의 청이 많이 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명도는 저명도가 28예, 중명도가 9예였다. 채도는 저채도가 8예, 중채도가 22예, 고채도가 7예였다.

[표7] 청색계유물의 HV/C 분포도

C					
14/					
12/					
10/			1	1	3
8/			1	1	2
6/		1	1	1	3
4/	1	1	4	5	3
2/	2		1	1	1
V					
10/					
8/					
6/			1		
4/	3	1	5	8	5
2/				1	2
H					
	5B	10B	5PB	10PB	

[표8]은 청색계유물의 측색치를 계통색명과 톤으로 분류한 것을 정리한 표이다.

계통색명과 톤과의 관련으로 보면, 계통색명으로는 B, pB, V, gB의 순으로 출현하였고, 톤으로는 d, m, dp, dgy, gy 순으로 출현하였다.

따라서 청색계유물의 색조는 육안으로 볼 때에 다소 칙칙한 느낌의 청색조가 많다. 그리고 청색에 자색기미나 녹색기미가 포함된 것도 알 수 있다.

[표8] 청색계유물의 계통색명과 톤의 출현수

	B	gB	pB	V	계
m	3	3	1	2	9
d	11	1	2	1	15
dp			4	2	6
gy	2				2
dgy	5				5
계	21	4	7	5	37

3-2. 홍색계 유물의 색조의 특성

홍색계유물은 여자복식에 많이 나타나, 활옷, 당의의 안감, 저고리, 치마, 땡기 등의 유물 59예를 측색하였다. 측색결과 [표9]와 같다.

[표9] 홍색계유물의 측색결과

측색데이터(민셀치)	계통색명	톤
1 5.6RP 3.9/13.2	pR	v
2 7.0RP 3.1/12.2	pR	dp
3 7.4RP 4.4/10.6	pR	m
4 7.5RP 3.7/12.7	pR	s
5 7.5RP 3.4/14.0	pR	v
6 7.8RP 4.2/11.9	pR	s
7 8.0RP 2.9/12.2	pR	dp
8 8.2RP 2.6/7.8	pR	d
9 8.4RP 3.9/14.3	pR	v
10 8.8RP 4.5/11.0	pR	s
11 8.8RP 4.6/10.9	pR	m
12 9.2RP 3.7/10.9	pR	m
13 9.3RP 4.1/10.3	pR	m
14 0.1R 2.4/2.3	pR	d
15 0.1R 3.1/12.5	pR	dp
16 1.3R 3.1/10.0	R	dp
17 1.5R 2.6/9.7	R	dp
18 1.6R 2.2/8.6	R	d
19 2.9R 3.5/10.1	R	m
20 3.0R 5.3/11.3	R	s
21 3.1R 4.3/9.0	R	m
22 3.9R 2.6/8.6	R	d
23 4.7R 3.5/11.5	R	s
24 4.7R 4.2/12.0	R	s
25 4.8R 3.5/11.0	R	s
26 4.9R 4.2/12.6	R	s
27 5.0R 2.5/7.8	R	d
28 5.0R 3.2/9.7	R	dp
29 5.3R 4.0/11.3	R	s
30 5.3R 4.6/8.6	R	m
31 5.9R 3.7/13.5	R	v
32 6.2R 4.0/11.4	R	s
33 6.3R 2.0/7.8	R	d
34 6.4R 4.5/10.6	rO	m
35 6.5R 4.0/8.4	rO	d
36 6.5R 4.4/10.0	rO	d
37 6.7R 3.6/10.7	rO	d
38 6.8R 3.1/10.6	R	dp
39 6.8R 3.5/11.3	rO	dp
40 7.1R 3.7/12.8	rO	dp
41 7.3R 3.6/12.2	rO	dp
42 7.3R 4.6/10.0	rO	m
43 7.3R 5.6/8.8	rO	m
44 7.5R 2.6/9.9	R	dp
45 7.5R 3.4/12.3	R	v
46 7.5R 4.4/9.1	rO	d
47 7.6R 3.7/11.3	rO	dp
48 7.8R 2.4/7.6	R	d
49 7.8R 3.7/11.9	rO	dp
50 7.8R 4.1/13.6	R	v
51 7.8R 4.2/8.4	rO	d
52 7.9R 3.2/10.7	R	dp
53 7.9R 3.9/12.7	rO	dp
54 8.1R 3.9/12.4	rO	dp
55 8.2R 3.2/11.7	R	v
56 8.2R 3.9/13.2	R	v
56 8.3R 2.8/9.9	R	dp
58 8.6R 4.0/13.1	R	v
59 8.6R 4.1/10.8	rO	d

[표10]은 [표9]의 홍색계유물의 측색결과를 HV/C의 분포도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의 분포도 보면 홍색계유물에 출현하는 색상은 RP, R의 2색상이다. 홍색계유물의 측색치와 색조분포도에 나타난 특징을 보면 색상은 RP에 13예, R에 46예가 나타나 RP보다 R의 출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명도는 저명도 11예, 중명도 48예로 대부분의 유물이 중명도였다. 채도는 저채도는 1예에 불과했고, 중채도가 6예, 고채도가 52예로 압도적으로 고채도가 많았다.

[표10] 홍색계유물의 HV/C 분포도

C		H					
		16/	14/	12/	10/	8/	6/
2							
1	2		2				
2	3			1			
3	4				2		
4	5					1	
5	6						1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5						
25	26						
26	27						
27	28						
28	29						
29	30						
30	31						
31	32						
32	33						
33	34						
34	35						
35	36						
36	37						
37	38						
38	39						
39	40						
40	41						
41	42						
42	43						
43	44						
44	45						
45	46						
46	47						
47	48						
48	49						
49	50						
50	51						
51	52						
52	53						
53	54						
54	55						
55	56						
56	57						
57	58						
58	59						
59							

[표11]은 홍색계유물의 측색치를 계통색명과 톤으로 분류한 것을 정리한 표이다.

계통색명으로는 R, rO, pR의 순으로 출현하였고, 톤으로는 dp, d, m, s, v의 순으로 출현하였다. V와 s를 합하면 19예가 출현하므로, 조선시대의 홍색계 유물에는 선명하고 강하고 진한 홍색조를 나타내는 것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11] 홍색계유물의 계통색명과 톤의 출현수

	R	pR	rO	계
v	6	3		9
s	7	3		10
m	3	4	3	10
dp	7	3	7	17
d	5	2	6	13
계	28	15	16	59

4. 전통색 청·홍색계의 색조활용을 위한 천연염색의 시범(試染)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현대디자인에 전통색조를 현대화하여 활용하는 것은 필요한 과제이다. 수출상품이나 어패럴업체 등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업체에서는 전통색조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내수업체로도 한복업체, 생활한복업체, 관광상품이나 지역의 토산품업체, 그밖에도 한국의

미를 표현하려고 하는 디자인업체 등에서는 전통색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통색조의 재현에는 천연염색이 가장 적합한데, 국내에는 아직 천연염색방법을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하여 출간한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제까지 한국전통색을 재현하기 위한 연구로는 고문헌상에 나타난 방법을 그대로 재현하여 시험한 연구들은 있었다.

그러나 전통색조를 산업체에 활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천연염색의 염색방법을 계량화하고, 데이터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를 인식하고 색조는 전통색조를 재현 하되, 산업체에서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보다 현대적인 염색방법으로 계량화하였다. 즉색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다양한 색조를 발색시키면서, 최근 고조되고 있는 천연염색에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염재는 식물염재를 사용하되 매염제는 구하기 쉬운 화학약품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색조에 변화를 주기 위하여, 매염제와 염포에 차이를 두고 시험해 보았다. 매염은 선매염(先媒染)의 방법을 취하였고, 색소의 침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면포의 일부에는 콩즙매김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염색방법을 계량화하여 데이터가 제공되도록 하였다.

4-1. 염색전처리

1) 정련

시험포는 견포(두께: 0.33mm), 면포(두께: 0.275mm), 마포(두께: 0.3mm)의 세가지를 준비하였다. 모든 시험포는 중성세제인 모노젠(monogen)을 넣은 더운물 4ℓ에 10-15분간 담가둔 후 수세한다.

2) 선매염 방법

선매염방법으로는 다음의 세가지 방법을 이용하였다.

A. 유산알루미늄칼륨- $K_2SO_4Al_2(SO_4)_3$ 매염액에 의한 선매염

①유산알루미늄칼륨은 소명반(燒明礬)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백반이라고도 한다. 이 소명반을 시험포 무게의 6%의 분량을 준비하여 물 500cc에 넣어 가열한다.

②소명반이 더운 물에 녹아 투명해졌으면 매염액이 완성된 것이므로, 시험포를 넣고 15분간 잘 움직여가며 매염한다.

③매염된 시험포는 수세, 건조시킨다.

B. 초산철(醋酸鐵) 매염액에 의한 선매염

①초산철은 일반적으로 철장(鐵漿)이라고 하는데, 고철:초산:물을 1:1:1의 비율로 끓여 거른 액이다. 이 초산철을 시험포 무게의 30% 분량으로 준비하여 물 5ℓ에 섞어 잘 저어 매염액을 만든다.

②매염액에 시험포를 넣고 20분간 잘 움직여가며 매염한다.

③매염된 시험포는 수세, 건조시킨다.

C. 소명반과 초산철 매염액에 의한 선매염

①소명반으로 매염한 시험포를 초산철 매염액에 넣고 20분간 매염한다.

②시험포를 잘 움직여 매염한 후, 수세하여 건조시킨다.

8) 조 효숙, 조선시대의 전통염색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학원 석사논문, (1984)

9) 이 의정, 한국의 전통염색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지 제7권,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992)

3) 콩즙매김

면포에 콩즙매김을 해주면 색소의 침착력이 좋아져 보다 선명한 발색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콩즙매김을 실시하였다.

①대두 50g을 하룻밤 물에 불려 믹서에 갈아 면포로 걸러낸다.

②시험포인 면포 무게의 약 2.5배의 콩즙에 시험포를 담가 콩즙이 골고루 스미게한 후 햇볕에 말린다.

4-2. 청색계의 색조활용을 위한 남(藍)의 생업(生業)을 이용한 천연염색

1) 염색재료

청색계의 색조재현을 위해서는 남초(Polygonum tinctorium, LOUR.)의 생업을 이용하여 염색하였다. 남초는 홍화와 마찬가지로 가장 오래된 염재로 한반도 전역에 보급된 것이었다. 남초는 염료인반을 지칭할 정도로 대표적인 염료였다.

남초의 주성분은 인디고(Indigo)로 염색방법이 간단하지는 않으나, 건뢰도가 크고 방충의 효과가 있고, 염재를 구하기 쉬운 장점이 있어 많이 이용되었다.

본 시험에서 매염제로는 옥신돌(C_8H_7NO)을 사용하였고, 시험포로는 견포, 면포, 마포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분량은 [표12]와 같다.

[표12] 청색계의 염색재료

염색준비물	분량
남초의 생업	300g
옥신돌	20cc
견포	34g
면포	21g
면포(콩즙매김)	21g
마포	24g

2) 염색방법

①시험포 무게의 300%의 쪽잎 300g의 생업을 준비하여 믹서에 간다. 믹서 1대에 물1ℓ를 넣고 쪽의 생업 75g을 넣어 1분간 간다. 남은 쪽잎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믹서에 간 쪽잎은 삼베천으로 걸러내어 염료액을 추출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염료액을 신속히 하지않으면 색이 탁해지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단시간 내에 염료액을 걸러내어 염색하도록 한다.

②전처리한 시험포를 염료액에 넣고 15분간 침염한다. 침염시에는 반점이 생기지않도록 천을 계속 염액속에서 움직이고, 때때로 공기중에 꺼내어 바람을 통해준다.

③옥신돌 20cc를 물 2ℓ에 넣고, 그 속에 염색한 시험포를 넣고 15분간 천을 잘 움직여 준다.

④옥신돌 처리한 시험포를 수세한다.

⑤수세한 시험포를 탈수, 햇빛에 건조시킨다. 곧 건조하지 않으면 색이 탁해지므로 염색은 반드시 청명한 날을 택해서 해야한다.

⑥건조된 시험포를 색채색차계로 측정한다.

3) 염색결과

청색계의 염색결과는 [표13]과 같다.

색채색차계(Minolta CR-310)로 시험포를 측정해 본 결과 색상은 마의 무매염을 제외하고는 모두 B와 PB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염착유물의 색상과 동일한 결과이다.

명도와 채도를 비교해보면, 청색계의 염착유물에는 저명도, 중채

도가 많았는데, 쪽의 생염을 시염한 결과로는 증명도, 저체도가 많았다. 즉, 시염의 결과는 유물측색 데이터에 비하여 명도가 높고 체도가 낮는데, 이것은 염색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염의 염색방법은 쪽의 생염으로 염색하는 방법도 있지만, 쪽의 색소만을 침전시킨 니람(泥藍)으로 염색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염색시 쪽항아리에 담그는 횡수에 따라, 횡수가 많아질수록 청의 농색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염색방법에 의한 색조차이가 본 시염결과와 유물측색과의 색조차이를 유발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시염에서 니람은 사용하지 않고 남의 생염만을 이용한 결과 유물색의 변화가 시염포와 염적유물과의 색조차이를 유발한 이유로 사료된다.

[표13] 청색염의 시염결과

시염포의 종류	매염제의 종류	측색데이터
1	무매염	6.1B 8.4/0.7
2	목면 소명반	3.3PB 7.1/3.0
3	소명반과 초산철	1.9PB 6.7/2.7
4	초산철	3.6PB 6.7/3.2
5	목면 무매염	2.6PB 6.1/4.3
6	(콩즙 소명반)	0.1PB 6.4/2.1
7	매김 소명반과 초산철	1.8PB 6.9/2.5
8	무매염	4.7GY 6.0/0.8
9	마 소명반	9.7B 5.6/2.4
10	소명반과 초산철	0.1PB 5.4/2.2
11	무매염	0.2PB 5.4/3.2
12	견 소명반	3.0PB 6.2/2.5
13	소명반과 초산철	0.6PB 5.8/4.7
14	초산철	2.1PB 4.0/4.4

4.3. 홍색계의 색조활용을 위한 홍화를 이용한 천연 염색

1) 염색재료

홍색계의 색조재현을 위해서는 홍화(*Carthamus tinctorius*, L.)를 이용하여 염색하였다.

홍화는 국화과의 일년생식물로 6~7월에 개화하여, 붉은 빛이 도는 황색의 꽃이 핀다. 홍화의 꽃잎에는 수용성인 황색색소와 알칼리에 의해 추출되는 홍색색소인 카타민(Carthamin)의 두 종류가 포함되어 있다. 홍화는 고가의 염재였는데, 우리말로는 잇꽃이라고도 하고, 연지(胭脂), 홍담(紅藍)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었다.

홍화염의 공정은 황색소를 흘려보낸 후 알칼리용액으로 홍색소를 추출하여, 조로 발색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홍화염은 기온이 올라가면 발효, 부패하기 쉬우므로 염색에 가장 좋은 계절은 추운 겨울이었다. 그러므로 홍화를 홍화병(紅花餅)으로 만들어 보존하여 사용하였다고 한다.

본 시염에서 매염제로는 탄산칼륨, 구연산, 식초를 사용하였고, 시염포로는 견포, 면포, 마포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분량은 [표14]와 같다.

2) 염색방법

홍색염은 레드색조가 강한 홍색염과, 핑크색조가 강한 분홍염의 두 가지로 나누어 염색하였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14] 홍색염의 염색재료

염재	매염제	시염포	염색준비물	분량
			홍화	1Kg
			탄산칼륨	80cc
			구연산	27g
			식초	200cc
			견포	100g
			면포	50g
			면포(콩즙매김)	50g
			마포	100g

A. 홍색 색소 추출

① 먼저, 홍화1Kg을 물 15ℓ에 담가 2시간 방치하여 황색색소를 추출한다.

② 황색색소를 추출한 홍화에 물 10ℓ와 홍화부게의 8%인 탄산칼륨(K₂CO₃) 80g을 넣어 2시간 방치한다.

③ 물에 붉은 홍화 꽃잎을 손으로 찢서 바구니에서 문질러가며 색소를 추출하고, 친으로 걸러 약 10ℓ의 홍색색소를 추출한다.

B. 홍색염

① 홍색색소 3ℓ에 꽃의 무게 300g의 약 3%의 구연산(C₆H₈O₇) 9g을 더하여 10분간 시염포를 침염한다. 염색시에는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시염포를 움직인다. 이때 PH7~8을 유지한다.

② 시염포에 구연산 3%(9g)를 더하여 10분간 침염한다. 이때 PH 6~7을 유지한다.

③ 시염포에 다시 한 번 구연산 3%(9g)를 더하여 10분간 침염한다. 이때 PH5~6을 유지한다.

④ 식초 100cc를 물 2ℓ에 넣고 시염포를 10분간 넣어둔다. 이때도 시염포를 계속 움직여 얼룩이 생기지 않게한다.

⑤ 시염포를 잘 수세하고 응달에서 말린 후, 건조된 시염포를 색채색차계로 측정한다.

C. 분홍염

① 홍색색소 4ℓ에 구연산 16g을 더하고, 10분간 시염포를 침염한다. 침염시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시염포를 계속 움직인다.

② 구연산 16g을 더하여 10분간 침염한다. 이때도 시염포를 계속 움직인다.

③ 식초 100cc를 물 2ℓ에 넣고 시염포를 10분간 담근다. 담그고 있는 사이에도 시염포를 계속 움직인다.

④ 시염포를 잘 수세하여 응달에서 말린 후, 건조된 시염포를 색채색차계로 측정한다.

3) 염색결과

홍색염과 분홍염의 염색결과를 정리하면 [표15]와 같다.

시염포를 색채색차계로 측정하였더니, 색상은 모두 염적유물의 색상과 동일한 RP와 R이었다.

명도와 체도를 비교해보면, 홍색계의 유물측색 데이터에는 증명도, 고체도가 많았는데, 본 시염결과도 모두 증명도, 고체도였다.

더욱이, 시염결과와 측색데이터와 홍색계유물의 측색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측색치에서도 매우 근사(近似)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시염결과가 홍색계 염적유물의 색조와 근사한 것은, 홍화를 이용한 본고의 염색방법이 전통염색과 유사했던 결과라고 생각된다.

[표15] 홍색염과 분홍염의 시염결과

염색의 종류	시염포의 종류	측색데이터
1	목면	1.7R 6.0/12.1
2	홍색염 목면(공즙매김)	2.0R 5.8/12.5
3	마	3.4R 5.0/12.1
4	견	2.3R 5.9/11.3
5	목면	9.1RP 6.1/12.0
6	분홍염 목면(공즙매김)	0.6R 6.2/11.9
7	마	2.5R 4.9/11.5
8	견	8.8RP 5.9/13.2

5. 결론

한국전통색 청·홍의 색조특성을 조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색 청·홍색계는 전통색 중 가장 분화가 큰 색명으로, 청색계 색명보다도 홍색계 색명의 분화색이 더 많았다.
2. 전통색 청·홍은 농담을 나타내는 수식어를 색명 앞에 붙여, 다양한 분화색조를 나타내었다.
3. 전통색 청·홍은 색상의 변화보다는 명도와 채도에 변화를 주어 미묘한 색조의 분화색을 만들어내었다.
4. 청·홍색계의 유물의 색조를 먼셀의 분포로 조사해보면, 청색계유물의 색상은 B, PB가, 명도와 채도는 저명도, 중채도의 출현율이 높았다. 홍색계유물의 색상은 RP, R이, 명도와 채도는 중명도, 고채도의 출현율이 높았다.
5. 청·홍색계의 유물의 색조를 계통색명과 톤의 분포로 조사해보면, 청색계유물의 계통색명은 B가 톤은 d의 출현율이 높았고, 홍색계유물의 계통색명은 R이 톤은 dp의 출현율이 높았다.
6. 청·홍색계의 전통색조를 활용하기 위하여 친연염색으로 시연한 결과, 남의 생업을 이용한 남염보다는 홍화염의 경우가 염착유물의 색조에 근사하였다. 또한 각각의 친연염색방법은 계량화하고 데이터화하였다.

참고문헌

1.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탐구당, 1968
2. 서 유구, 임원경제지, 서울대학교 고전간행회, 1983
3. 빙허각이씨, 규합총서, 보진재, 1992
4. 한양가, 민광문화사, 1994
5. 김 영숙, 조선조말기 왕실복식, 원류사, 1988
6. 김 용숙,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 일지사, 1996
7. 고 을한·김 동욱, 디자인을 위한 색채계획, 미진사, 1994
8. 이 선재, 유교사상과 의례복, 아세아문화사, 1992
9. 한국전통표준색명 및 색상(제1차시안), 국립현대미술관, 1991
10. 한국전통표준색명 및 색상(제2차시안), 국립현대미술관, 1992
11. JAFCA BASIC COLOR CODE, 일본유행색협회, 1979
12. 武井邦彦, 色彩藝術論, 光村圖書, 1983
13. 江幡 潤, 色名の由來, 東書選書74, 東京書籍, 1982
14. FIC標準カラコド, オールファッションア-ト研究所, 1978
15. 이 경희, 한·일전통색의 삼속성에 있어서의 분포특성,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제5호, 1995

16. 이 경희, 전통색에 대한 한·일대학생의 색채기호의 비교,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제9호, 1997
17. 이 양섭, 한국전통 홍염연구, 연구보고 제4집, 건국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1980
18. 이 양섭, 한국전통 남염의 비교연구, 연구보고 제6집, 건국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1983
19. 이 양섭, 조선시대 궁중의복 염색연구, 연구보고 제11집, 건국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1988
20. 이 양섭, 조선시대 색명 및 그 색 연구, 한국색채학회지 제3호, 1992
21. 조 효숙, 조선시대의 전통염색법 연구, 이화여자대학대학원 석사논문, 1984
22. 이 의정, 한국의 전통염색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지 제7권,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992
23. 김 지희, 염료식물재배 및 염식물제작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부설 산업미술연구소, 1993